



<AsiaNet> 유능한 인재들의 배우자, 해외 파견 근무중에도 일하고 싶어해

- 글로벌 조사를 통해 배우자 고용 욕구에 대한 주력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

(헤이그 10월 25일 AsiaNet=연합뉴스) 배우자 취업기회가 부족한 것이 해외에 파견된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의 글로벌 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멀티미디어 보도자료는 다음 링크를 클릭:

<http://multivu.prnewswire.com/mnr/prne/permitsfoundation/37563>

이는 해외 200개 대사관 및 해외 기관에 파견된 3,300명의 유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이다.

조사자인 Permits Foundation은 120개국에 파견된 해외 주재원들의 수와 동일한 국적을 지닌 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으며,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할 경우 고용주를 위시하여 가족, 주재국 모두 '트리플 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약 60%가 향후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다시 살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이와 달리,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나라는 응답자의 96%가 매력적인 목적국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Permits Foundation은 전세계 파견직원에 대한 노동허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면서, 합법적 거주 자격을 취득한 배우자가 해외 배치 중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개적 노동허가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랐다. Permits Foundation은 인도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에 고용자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이들 국가에서의 노동허가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Permits Foundation 회장 겸 Schlumberger의 임원보수 담당인 Gill Gordon 이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로 입증되었다시피, 조사결과는 해외 최고 인재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배우자들 또한 다양한 이력을 지닌 고학자이다.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편이 현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배우자들의 열망과 직장을 가졌을 때의 긍정적 파급 효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조사에 임한 배우자들의 거의 90%가 해외 파견 전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숫자는 해외 파견 기간 중 35%로 뚝 떨어졌으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약 75%가 다시 일을 하고 싶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히 젊은층과 남자, 대학 졸업자, 미혼 배우자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일을 하는 배우자 대부분이 이번 조사가 파견국가에서 적응 및 파견업무를 마치는 데 따른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ORC 유럽, 중동 및 아시아 사업부의 Siobhan Cummins 관리이사는 “이번 설문은 배우자 관점에서 고용 및 노동허가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라면서 “배우자 고용 요구 인지가 해외 이동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사는 고용주들이 부부 맞춤형 직원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할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로서, 참고 목록 자료에 추가할 수 있는 귀중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

http://permitsfoundation.com/docs/permits_survey_summary.pdf

http://www.permitsfoundation.com/docs/permits_survey_final_report.pdf

Kathleen van der Wilk-Carlton PermitsFoundation@shell.com Tel +31703191930

자료 제공: Permits Foundation